

3대가 함께...광주서 부다페스트까지 전기차로 2만7천km

헝가리서 근무하는 엄마 찾아 두 아들·아빠·할아버지 80일간 여행
‘송송송 가족여행:전기차 지구횡단’ 영화 제작 상영...영화제 리브콜
“여행하다보면 갈등 있기 마련이지만 가족은 늘 사랑 나누는 존재”

‘엄마 만나러 가는 길, 전기차 타고 광주에서 부다페스트까지.’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할아버지 송주동(75), 영화사 대표 아빠 송진욱(45), 손자 송다니엘(10)과 송하진(8). 3대(代)가 함께 친환경 전기차를 타고 80일간 유라시아 2만 7363km를 횡단했다. 기나긴 여정의 목적은 부다페스트 한국 기업 현지 지사에서 일하는 엄마를 찾아가는 것.

이들은 지난해 5월 광주시 북구 자택에서 출발해 러시아, 카자흐스탄, 핀란드 산타클로스 마을 등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아우르는 길 위에 섰고 긴 여정은 다큐멘터리 ‘송송송 가족여행:전기차 지구횡단’으로 완성돼 영화관에서 상영 중이다. 작품은 바르셀로나 국제영화제 세미 파이널리스트 등 영화제의 리브콜을 받고 있다.

지난 2022년 어쩌다 필름을 창업해 영화 수입, 투자 등을 진행했던 송중욱은 영화사의 첫 작품으로 이번 영화를 기획, 감독으로 참여했다. 마침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었고 일반 투자금과 개인 돈을 투입해 여행 기록을 영화로 남길 수 있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많고 늘 도전적인 삶을 살았던 그가 ‘무모한 여행’을 감행한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다.

“저희 집안이 장수 집안이라 늘 아버지와 시간도 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아버지가 간암 수술을 받으시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건강하실 때 같이 여행하는 걸 늘 생각했는데 손자들도 예

뻘하시니 함께 여행하며 추억을 만들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여행을 제안할 때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또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재산은 ‘경험’이라는 생각에 과감히 도전했습니다.”

여행에 사용한 차량은 아버지가 운행하던 현대 아이오닉 5. 첫 계획은 1만 7198km였지만 우즈베키스탄과 이란 통과가 좌절되면서 코스가 바뀌었고, 노르웨이 피요르드 해안을 보고 싶다는 아버지의 소원을 위해 북유럽 끝까지 달려 여정은 2만 7363km로 늘어났다.

촬영감독 등 3명이 동행하며 드론 등 9대의 카메라로 잡아낸 4K 영상은 장엄한 자연 풍광을 보여주고 네 가족의 일상을 생생히 포착했다. 출발 당시 “왜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는 거냐”고 말했던 다니엘은 동생과 투닥거리면서도 알뜰히 챙기며 의젓하게 형 노릇을 했고, 두 살 터울의 하진은 ‘아빠 심심해’를 입에 달고 살며 투정을 부리기도 했지만, 자연 속에서 환하게 웃으며 뛰어놀았다.

전기차 충전소를 찾는 건 여행중 가장 힘든 일



할아버지 송주동, 아빠 송진욱, 손자 송다니엘과 송하진 등 3대(代)가 함께 한 80일간의 여행 기록을 담은 ‘송송송 가족여행:전기차 지구횡단’ 스틸 컷. <어쩌다 필름 제공>



이었다. 국내에서는 충전소를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완충하는 데 드는 시간도 40분이면 충분했지만 시설이 열악한 중앙아시아 등에서는 8시간 정도가 걸렸고 때론 24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 식당에서는 양해를 구하고 전기차를 충전하다 건물이 정전될뻔한 돌발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여행은 아름다운 ‘만남’을 가능하게 해준다. 카자흐스탄에서 만난 태권도 유단자 알렉스는 가족들이 곤경에 빠졌을 때 집으로 초대해 주었고, 아이들이 친구가 되었다. 자동차 수리비용을 지불하려던 송 감독에게 그들은 “앞으로 만날 누

군가에게 선의를 베풀면 된다”는 말을 하며 돈을 받지 않는다.

영화를 제작하면서 송 감독은 두편의 영화를 마음에 뒀다. 같은 사안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본영화 ‘라쇼몽’처럼 아버지, 나, 아이의 시선으로 각각의 이야기를 촬영하려 했고, ‘이웃집 토토로’처럼 엄마를 찾아가는 아이들의 모습과 표정을 담담히 담으려 했다.

무사히 엄마를 만나고 촬영이 마무리되려던 순간,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만다. 아버지의 죽음. 출발 전 인터뷰에서 “이번이 마지막 여행일지도 모르겠다. 즐겁게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긴 아버지에게서 ‘조금이라도 아프면 귀국한다’는 다짐을 받고 떠난 여행이었다. 여행 중 몇 차례 귀국을 권할 때마다 줄곧 “괜찮다. 마지막까지 함께 하고 싶다”고 말하던 아버지는 헝가리 도착 후 며칠만에 급성간부전으로 세상을 떠나고 만다. 초등학교 5학년이던 큰 아들을 교통사고로 먼저 떠나보냈던 아버지는 어쩌면 사랑하는 아들, 손자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여행을 고집했는지도 모르겠다.

“편집할 때 너무 힘들었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영화에 보면 아버지와 다투는 장면도 나오는데,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게 마음에 남아요. 아이들이 할아버지와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가장 내밀하고 치부까지 드러내는 게 가족이죠. 장거리 여행을 하다보면 부대끼고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늘 함께 하며 사랑을 나누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헝가리에서 학교를 다니는 다니엘과 하진은 개봉에 맞춰 GV 참석 등을 위해 귀국, 광주 할머니집에 머물고 있다. 세 부자는 첫 영화와는 반대로 부다페스트에서 할머니를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두번째 영화를 만들 꿈을 꾸고 있다.

영화 마지막에는 캠퍼터로 촬영한 송 감독과 아버지의 35년 전 이집트 여행 영상이 흐른다. 송 감독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과 계속 여행을 이어갈 거라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전남도, ‘축산 농가 악취 개선 사업’ 추진

여수·순천·나주·해남·무안 선정...시·군별 최대 30억 지원

여수·순천·나주·해남·무안지역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한 악취 개선 사업이 추진된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축산악취개선 사업’ 공모 결과, 여수·순천·나주·해남·무안 등 5개 시·군을 선정했다.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은 축산분뇨 처리와 악취 저감, 경축순환을 위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 공모로 선정된 시·군당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된다.

전남도는 여수시와 순천시의 경우 공모 선정을 통해 각각 29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고 해남군 23억원, 무안군 20억원, 나주시 16억원 등 모두 11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구례와 함평도 예비사업 시·군으로 선정돼 향후

농식품부의 사업비 추가 확보시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전남도는 공모사업을 통해 이들 지역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시설 개선 및 축산악취저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해 축산분뇨 처리와 악취 저감 등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3000만 뷰 돌파

전남국립의대 2027년 개교·규모 확정 요청

김영록 전남지사, 정은경 복지부장관 만나 신속 설립 건의

교육부가 전남 국립의대 개교를 2030년도로 예측한 것과 관련, 김영록 전남지사가 복지부를 찾아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전남에 통합대 국립의대와 대학병원의 신속한 설립을 건의했다.

교육부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의대 및 부속병원 신설 절차’를 설명하고 전남 국립의대 개교를 2030년 3월로 전망한 바 있다.

전남도 안팎에서는 대통령의 전남지역 1호 공약을 임기 말년에도 실현하겠다는 것은 지역민의 염

원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이 터져나왔다.

김 지사는 이같은 점을 들어 의대 신설 절차를 통과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내년 안에 충족시켜 당초 목표했던 2027년도 개교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통합대 국립의대 신설 정원을 포함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연내 마무리해 반드시 2026년 2월까지 정원 규모를 확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은경 장관은 이와관련,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에서 지역·필수과목별 필요 의사 정원 추계에 전남 지역도 포함해 추계하고, 앞으로 통합 의과대학 신설에 따른 의대 정원 등 현안에 대해 잘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이재용 삼성회장 장남 이지호씨

진해서 해군 장교로 입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씨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해군 장교로 입대했다.

이씨는 15일 오후 1시 5분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기지사령부 제3 정문 위병소를 미니밴에 탑승한 채로 통과했다. 이씨는 이날 139기 해군 학사관 후보생으로 입영해 11주간 장교 교육 훈련을 받고 12월 1일 해군 소위로 임관할 예정이다. 소위는 위관급 장교의 세 계급 가운데 맨 아래 계급이다.

훈련기간과 임관 후 의무복무기간 36개월을 포함한 군 생활 기간은 총 39개월이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복수 국적을 가지고 있던 이씨는 해군 장교로 병역 의무를 다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해 재계에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연합뉴스

흡수합병에 따른 채권자의의제출 공고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원대물산 (이하 “갑”이라고 한다)과 주식회사 해리교육 (이하 “을”이라고 한다)은 2025. 09. 12.에 양사의 주주총회의 서면결의로, 갑은 을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주는 본 공고 게재일 다음 날부터 1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의 및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16일

“갑” (합병법인) 주식회사 원대물산
광주광역시 북구 복문대로160번길 8, 101동 1004호(온암동)
대표이사 심완보

“을” (폐합법인) 주식회사 해리교육
전라남도 나주시 노변면 학산로 81
대표이사 심완보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 공고)

주식회사 화원(이하 “갑”)과 호민전기 주식회사(이하 “을”)는 2025년 09월 15일 각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을”의 전기공사업 영업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문을 “갑”과 분할합병하고 “을”의 분할된 부문의 권리와 의무를 “갑”이 승계하고 양 회사는 존속하며 상법 제530조의 9 제3항에 의거하여 출자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합병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다음 날부터 1개월 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공고함.

2025년 9월 16일

“갑” 주식회사 화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로 16-28, 403-3호 (서창동, 오케이빌딩)
대표이사 김 시 하

“을” 호민전기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053 한산아파트 제삼가동 303호, 304호
사내이사 박 민 영

못 받은 돈 회수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권 및 매매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자본감소공고

본 회사는 2025년 09월 1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금990,000,000원을 금540,000,000원으로 감소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10,000원 주식 45,000주에 대하여 강제유상소각하기로 하여 발행 주식총수 99,000주를 54,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으므로 당사의 주주께서는 이 공고게재일부터 1월 이내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위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함.

2025년 9월 16일

한국금융투자대부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호로 82-1, 2층(지산동)
대표이사 김 중 길

의료빌딩 급매 (7층)

병,의원 원천 최고, 현재 수익률 6%
소아청소년과, 통증과, 약국(영도가능)
2층 내과 실면적 170평 준비 중
월 3천 1백, 주차 23대, 빌딩 앞 환색선,
공용주차장 50대, 군산중심, 롯데마트 앞.

매 72억, 인수가 20억

010-3646-8700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